

특별기고

150만 광주시민이 완성한 교향곡, 광주U대회



김윤석
2015광주하계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광주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12일간 불타올랐던 광주U대회 성화는 꺼졌지만, 그 열기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정과 배려는 대회가 끝난 지금도 회자되며 훈훈하게 하고 있다. 대회 기간 세계 젊은이들이 보여준 도전과 열정의 휴먼스토리, 뜨거운 함성은 지금도 생생하기만 하다.

조직위원회는 그 열기를 책 한권에 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회 유치 이후 준비 과정, 그리고 대회 개최까지, 조직위원회는 그 인내와 영광의 순간들을 녹여낸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흘렸던 땀방울과 대회에서 거둔 유무형의 값진 성과들을 책 한권에 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한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마침내 기회를 손에 쥐었고, 결국 대회는 성공을 넘어 전설로 남게 됐다. 대회 유치에서 성공까지 9년의 여정 뒤에는 대회 유치와 준비, 개최를 진두지휘한 전·현직 시장이 있었다.

박광대 전 광주시장은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광주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했다. 2007년 중반부터 시작된 광주U대회 유치 과정은 한 번의 실패가 있었던 탓에 또다시 실패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이뤄진 험난한 여정이었다.

2009년 5월 대회 유치에 성공해 대회 준비를 이어가게 된 강운태 전 시장은 선수촌 전역 민자 건설 등을 통해 대회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새로운 도심 재생에 기여했다.

윤장현 시장은 대회 개최 1년 전에 바통을 이어받아 마지막까지 현장을 발로 뛰며 세심하게 준비했다. 특히 청년축제, 선수단 팸투어 등으로 스포츠대회 이상의 신화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

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대회가 끝난 후, 국제대학스포츠포럼이 감사 서한문을 통해 광주U대회는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유니버시아드로 막을 내렸고, 시민의 절대적인 헌신과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치열했던 대회 유치 과정, 비용 절감을 위해 안간힘을 썼던 대회 준비기간, 그리고 대회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기까지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의지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광주 시민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배려심, U대회에 대한 애정은 광주U대회가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150만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광주U대회’라는 한 편의 교향곡을 완성한 것이다.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그리고 광주시민 모두 지휘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능려했고, 그리고 조화롭게 펼쳐 내보였고, 마침내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 박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민이었다.

광주시민들은 대회 유치 때부터 강한 열망을, 그리고 의지를 보여줬었다. 2013

U대회 유치에 나서 쓰라린 패배를 겪은 직후에도 시민사회는 유치 재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힘을 결집했다. 그러곤 유치에 성공했다. 우리는 함께 최고의 시설, 최고의 게임,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대회를 만들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 보란 듯이 대회를 세계 대회의 ‘전설’로 만들었다.

U대회를 통해 광주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자부심, 수준 높은 시민문화를 확인했다.

9년의 과정에서 제법 얼굴이 알려진 탓인지 대회가 끝난 후, 광주 송정역에서 마주하니 세 분이 “광주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건네왔다. 어느 식당에서 만난 할머니 역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두 손을 꼭 잡았다.

광주의 자부심을 되찾기까지 150만 광주시민의 헌신이 감사 드릴 따름이다. 광주의 역사, 우리의 후손은 2015년 150만 시민이 완성한 환상의 교향곡을 기억할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감격스러웠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의 세월도 그만큼 흘렀다.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35년 만에 광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온 민족이 독립을 위한 불굴의 투쟁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 정세와 시대의 흐름을 탄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한민족의 독립 역량이 기인한 것이다.

우리 역사의 면면을 보면 암울했던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던 민족의 DNA가 있다. 어려운 시절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열정과 긍정심을 가지고 온

광복 70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것 시련을 극복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20세기 한 편린만 보고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평가하는 것대로 삼을 수 없다. 오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낸 민족의 저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겸허하게 성찰해야 통일의 길도 바람직하게 열여 갈 수 있다.

96년 전,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이 총칼로 빼앗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위해 나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일어났다.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독립의 굳은 신념과 애국심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이 거대한 물결에는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종교와 국내외 지역의 구분도 없었다.

일제의 가혹한 무력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 등 독립 투쟁에 온몸을 바친 우리 선조들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3·1운동의 정신은 중국·인도 등 비호한 처지의 이웃나라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고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3·1운동과 선열들의 끈질긴 독립투쟁은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결정할 때에도 결정

적 영향을 주었다. 이 위대한 3·1정신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계승되면서 변명과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이룩한 원천이 되었다.

광복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다. 남북의 분단과 대치 상황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확립하고 광복 70년 만에 이 모든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나라를 지키는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역사 대대로 슬한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 왔기에 이러한 위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온몸과 영혼을 바쳐 자주독립을 선언하며 꿈꾸었던 나라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꿈은 자손 대대로 풍성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이며 또한 ‘동양의 영원한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나라를 염원하였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손들이 풍성한 삶

의 행복을 깊이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안보가 튼튼해야 하며,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경제력이 동시에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한 바탕에서 모두의 마음을 열고 화합할 수 있는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아직도 남북 간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이 있다.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불신의 장벽’도 쌓여 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사이에 놓인 ‘사회문화적 장벽’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의 과제는 매우 중대하지만 통일은 목적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당위론적 통일의 주장을 뛰어넘어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진지한 공론의 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다시는 북한의 무모한 침략으로 우리의 소중한 장벽들의 희생을 아서서는 안 된다. 진정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社說

화재 위험 안고 달리는 불안한 시내버스

광주 시내버스 10대 가운데 7대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내놓은 ‘시내버스 화재 발생에 대한 검토’라는 문서를 보면 현대자동차 ‘유로5’ 차량의 엔진룸 구조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주 시내버스 1000여 대 중 문제의 유로5 차량이 700여 대나 된다는 것이다.

특히 유로5 차량의 엔진룸을 들여다 보면 운행 시 최대 1000도까지 온도가 치솟는 터보장치와 고무호스·플라스틱 소재 장치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터보장치에서 뜨거운 오일이 고무나 플라스틱 소재로 흘러내릴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광주시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광산구 목련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화재 역시 유로5 차량으로, 엔진룸 터보장치 파손으로 인한 누유(오일)이 썩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터보장치와 호스 사이를 막는 격리장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유로5에 대한 구조적 결함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현대차 측은 아직까지 관리 소홀이지 차량 결함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는 하루 이용객만 47만 명에 달할 정도이니 흔히 말하는 대로 ‘시민의 발’이나 마찬가지다. 승승분당 룰도 36%로 대중 교통수단 중에서는 압도적인 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 등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한결같이 구조적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들을 탓해 왔다. 하지만 시내버스 문제는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된다.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와 연계해 유로5의 구조적 결함을 밝혀내고 필요하다면 리콜을 요청해야 한다. 서민들의 생명을 불안한 시내버스에 맡겨 둘 수는 없다.

외지 피서객 내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비 그치고 나니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는 것 같다. 피서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을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이번 주말에도 여전히 피서 인파는 넘쳐 날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피서지의 무질서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물론 불법 취사·주폭(酒暴·음주폭력 행위자) 행패에 바가지 상흔까지. 가마솥 더위를 피해 피서지를 찾은 이들의 불쾌지수는 오히려 높아만 간다. 행정 당국과 경찰의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함께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시민정신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지난 주말 본보 기사가 피서지를 둘러봤다. 물놀이장과 강변 등 피서지 곳곳에서 불법과 추태가 난무했다고 한다. 광주시 광산구 황룡강변은 원래 국가하천으로 취사가 금지돼 있지만 일부 피서객들은 버너를 이용해 고기를 굽거나 요리를 하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면 술잔이 벌어지고 고성방가와

싸움질, 그리고 피서객들이 떠난 자리에는 포장용기와 음식물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도 다르지 않았다. 어지러운 술판에 쓰레기더미, 거기에 바가지 상흔까지 판쳤다. 자칫해도 여전히 황폐하고 있었으며 숙박료와 음식 값 또한 몇 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피서지에서 당국의 계도·단속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광주·전남 지역의 피서지는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환경으로 최근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도 많이 찾는다. 따라서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흐트러진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데 전적으로 공헌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높은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이유다. 여름 한철 대목을 노리는 상인들도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다. 외지 피서객들이 내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여름철 산행



김대호
우리들병원 원장

한여름 무더위에도 ‘이열치열’이라며 산행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물론 산행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최고의 피서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돼 일상적으로 산행을 즐기게 됐다. 하지만 준비 없는 산행은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으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첫째, 높고 깊은 산에서 갑작스런 기상변화로 집중호우를 만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다.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날씨를 확인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계

곡에서 야영을 하거나 캠핑을 할 경우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급류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산행 중 일기예보 등 재난방송을 청취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산행을 하는 도중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심하게 내리면 핸드폰과 라디오의 전원을 끄고 몸에 부착된 액세서리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

체온과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의상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상식이다. 선글라스와 모자 그리고 물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비를 맞거나 높은 산에서 갑자기 체온이 떨어져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체온증이 올 수 있으므로 방수와 보온장비도 필수다. 뜨거운 여름철에는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피하고 견어물 또는 절임류 등을 준비한다. 또한 과일, 초콜릿, 미숫가루 등 비상식량도 준비해야 한다. 뱀이나 벌레를 특히 조심해야 하며, 진한 향수는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강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돼 나타나는 일사병과 열사병을 조심해

야 한다. ‘일사병’은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염분과 수분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한다.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온음료 등을 섭취하면 대부분 호전된다. ‘열사병’은 고온의 직사광선에 노출되었을 때 체온이 조절되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서 의식이 떨어지고 혼수상태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기드 한다. 열사병은 일사병과는 달리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환자의 체온을 빨리 내려주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산행은 많은 땀이 배출돼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찬물만 마시면 인체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일을 함께 먹고, 적당량의 염분을 섭취하면 좋다. 그러나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셋째, 산행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 급작스런 운동으로 인대나 근육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행은 울

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특별하게 적추나 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빨라져서 낙상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내려 오는 길은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척추손상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내려와야 한다. 높은 산이나 경사진 곳을 피하고 등산 전용 지팡이를 사용하면 좋다.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주의가 필요하다. 골밀도가 저하된 노인들은 산행 후 지속적인 통증이 계속 되면 척추 압박골절을 의심하고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척추 압박골절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쉽게 발생하며, 척추 뼈에 골절돼 척추체가 납작해지는 것을 말한다. 척추 압박골절이 심하지 않으면 보존적 치료를 하며, 심한 경우 골시멘트를 척추에 삽입하는 척추성형술을 하기도 한다. 여름철 산행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無 等 鼓

국회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이참에 성범죄 처벌에 대한 수위를 높이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번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교황도 성추행 사제의 성직을 박탈했다’는 내용이나 조선시대 성범죄자 처벌 사례를 올리며 해당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 강간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기본으로 하는 등 성범죄 처벌이 엄했다. 태조실록에는 ‘11살 어린아이를 강간한 사노를 교수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어린이

강간이나 강간 미수가 아닌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정 기록이 없다. 하지만 세종의 판결을 보면 강간 미수인 듯싶긴 한데 애매한 경우 미수범보다 조금 약한 장 80대에 처했다는 기록이 있다.

비록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여성의 순결을 침해할 경우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경고성 내용이 그리스신화에도 등장한다. 달과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가 숲 속 동굴에서 목욕할 때, 사냥꾼 아르타이온이 우연히 목욕장면을 엿보게 된다. 분노한 여신은 그를 사슴으로 만들어 사냥개에게 물려 죽게 만들었다. 엿본 죄 지고는 다소 심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만큼 순결과 성범죄에 대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관념이 강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성 관련 범죄나 추문, 대기업 대표나 교수들의 성희롱 사건이 잇을 만하면 터져 나온다. 온갖 혜택과 권한을 가진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가 수거되지 않는다면 대책은 하나다. 성 범죄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채희중 사회팀장 chae@

성범죄 처벌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 부 2200-642 여론홍채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디지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